

# 高麗時代의 教育에 對한 考察

玄 仁 洪

## 目 次

I 序 論	1) 國 子 監
II 社會的 文化的 背景	2) 鄉 校
1. 初 創 期	3) 東西學堂과 五部學堂
2. 動 亂 期	4) 十 二 徒
3. 排佛崇儒期	5) 書 堂
III 教 育 制 度	6) 科擧制와 教育
1. 國 子 監	V 教 育 思 想
1) 入 學 資 格	1. 鄜, 佛, 儒思想과 教育
2) 定員 및 年限	2. 教 育 思 想
2. 鄉 校	3. 教 育 思 想 家
3. 東西學堂과 五部學堂	1) 崔 冲
4. 十 二 徒	2) 安 珮
5. 書 堂	3) 李 穡
IV 教育의 實際	4) 鄭 夢 周
1. 教科內容 및 學習	VI 結 論

## I 序 論

悠久한 歷史의 連續性을 探求하고 또 한편으로는 社會的 變遷과 實生活과의 關聯性을 考察함으로써 過去 教育의 全貌를 理解할 수 있는 것과 같이 韓國歷史를 이룬 社會的 背景, 時代의 思潮, 教育思想 또한 이에 따른 실천으로 組織된 教育制度를 詳考해야 하리라고 보나, 近代 朝鮮末葉이 될때까지 韓國의 教育史는 中國의 儒敎史가 그 發祥地인 本國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 盲目的인 追從아래 실천해 나간 發達史라는 것을 우리들은 歷史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民族의 意識이나, 教育的 獨立性을 檢討할 自覺없이 無批判的으로 中國의 儒敎制度和 經書內容을 옮겨져 千年以上 教育하여 왔기에 우리는 獨立的으로 韓國教育史를 研究할 必要性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비록 長久한 歲月을 그 教理와 哲學과 制度를 採擇해 왔다고 하나 이미 이 땅에서 千年以上이 民族을 教育해 온 것도 嚴然한 事實이라고 보았을 때, 그 合理과 不合理를, 韓民族의 氣質과 社會的 地盤인 政治와 文化의 關聯속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緊切한 課題라고 確信한다.

高麗時代의 社會的 文化的 背景을 일별하고 이러한 時代의 教育思想과, 教育制度 및 內容과 方法을 考察하려 한다.

## Ⅱ 社會的 文化的 背景

高麗時代는 時代의 으로는 中世社會에 處하였지만 精神的으로는 原始狀態를 完全히 脫皮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sup>1)</sup> 巫俗信仰이 광범하게 社會生活面에 適用되었다. 人間에게 病이 發生하였을 때에도 藥物治療 보다는 鬼神을 믿는데 注力할 程度이었으니 크게는 國家의 行事에서 적게는 個人의 日常生活에 까지도 巫現에 의지하려는 生活態度이었다.

反面 文化는 新羅統一 以後의 文化的 延長이다. 太祖는 佛敎를 國敎로 삼았고, 強大한 契丹과 이웃하였기 때문에 武略을 重要視하였으며, 新羅때의 極盛하던 佛敎는 점차 墮落되고 反面 新羅時代의 微微하던 儒敎는 점차 向上 發展하였다. 그것은 東洋人文의 基本인 漢文이 점차로 發達되지 않을 수 없고, 漢文의 發達은 곧 儒敎의 發達이 되는 것이다.

高麗는 信仰으로서는 佛敎를 崇上하였지만 儒를 버리고 政治할 수 없으므로 崇儒政策을 併用하여 朝廷에서는 儒學者를 登用하여 文治를 이룩하였다.

### 1. 初 創 期

太祖(AD. 918)부터 第25代 忠烈王까지 約 400余年間에 걸쳐 再統一期인 同時에 社會的 文化的으로 變化를 가져온 時期라고 할 수 있다.

高麗一代를 通해 強大하게 支配해 온 것은 國家的 信仰인 佛敎이었다. 太祖로부터 恭讓王에 이르기까지 비록 佛敎排斥의 思想은 있었다고 하나, 歷代 王室의 絶對的 信奉과 一般大衆의 信仰對象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全國의 大行事는 거의 佛敎中心이었다.

第11代 文宗으로부터 第16代 睿宗까지 約 75年間의 時期를 高麗의 黃金時代요 文化的 隆盛期인 同時에 外國文化(遼, 宋)의 輸入期라고 할 수 있다. 特히 文宗朝의 制度의 改革과 貧民의 救濟等은 文藝 政治等에 依한 所産이요 結晶인 것이다. 外國文化의 輸入은 宋의 書籍과, 書畫 및 자기, 宋板等이며 高麗의 輸出品은 人蔘, 蔴, 紙類, 墨, 筆과, 扇等으로서 當時의 高麗文化 社會界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宋의 貴族階級과 富豪層에게 大端히 有益한 愛好品으로 好評을 받고 있었다.

이와같이 太平한 가운데 安逸한 生活만을 營爲하고 있었던 支配階級에는 어느듯 온갖 惰性和

1) 朴桂弘「巫가中世社會에 끼친 影響」韓國民俗學, 19號, p. 92

弊害가 나타나기 始作하였으니 이것이 곧 混亂과, 反亂, 動亂을 招來시켰던 가장 重大한 要因이었다. 貴族勢力이 擴大, 文武貴賤의 差別, 大土地의 所有로 因한 激甚한 貧富의 差, 支配階級 特히 僧侶들이 居處할 寺院과 또한 그 維持費로 國家財政의 浪費는 勿論 佛門에 있는 사람은 兎徭役의 特權을 가졌던 까닭으로 數 많은 靑年들이 壯이 되니 生産力과 勞動力 不足으로 因한 國力이 衰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sup>2)</sup> 이와같이 初創期에는 王室과, 貴族 그리고 一般大衆까지도 佛敎에 치우친 까닭에 教育制度에 있어서나, 文化面에 있어서나 初創期를 免치 못하였다.

## 2. 動 亂 期

第4代 光宗이 科擧制를 實施하고 第6代 成宗이 尊華崇儒의 政策을 實施하니 佛敎가 發達하여 文化興隆의 基礎를 세우는 同時에 權威있는 學者가 나오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崔冲」을 爲始로 碩儒들의 世稱 12徒라고 하는 有名한 高麗의 私學들이었다. 이렇게 各 地方마다 私學이 興旺하고 靑年들이 仁義禮智를 中心思想으로 한 儒學을 배우게 되어 濟家治國에 그 學風이 흐르게 되었다. 그러나, 不幸히도 儒學이 詞章中心, 文藝中心으로 치우쳐 輕薄한대로 흐르게 되고 또한 歷代의 王이 尙文 輕武의 政策을 使用한 까닭으로 武臣叛亂, 執政, 專橫의 時期를 맞아 文教가 極히 受難을 當하게 되었다.

第17代 仁宗으로부터 第23代 高宗때까지 約 120余年에 걸친 外侵內訂期요 政變期인 同時에 文化의 沈滯期라 할 수 있다. 約 100余年間의 叛亂과, 外侵은 必然的으로 麗朝에 尊武의 思想을 誕生케 하였다. 가장 規模가 컸던 叛亂과 外侵으로는 仁宗朝의 李資謙과, 拓俊京을 中心으로 한 權臣의 亂과, 西京을 中心으로 한 妙淸의 亂, 明宗朝의 鄭仲夫와 李義方을 中心으로 한 武臣의 亂과, 熙宗朝의 蒙古族인 成吉思汗의 侵入, 高宗朝의 契丹人의 頻繁한 侵攻, 元宗朝의 裒仲孫을 中心으로 한 三別抄의 亂 등으로 因하여 社會 文化的인 面에서 實로 暗黑時代라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sup>3)</sup>

前後 叛亂中の 「妙淸의 亂」 「三別抄의 亂」은 郎道의 精神을 이어받아 國粹主義의 一端의 發効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事實이다. 卽 事大思想과 隆盛하는 儒敎에 對한 民族的 反抗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 3. 排 佛 崇 儒 期

麗末 佛敎界의 墮落은 마침내 儒者側의 非難을 받게 되어 차츰 排佛論이 展開되었다. 더욱

2) 李丙燾 國史大觀 pp. 149~206

3) 上揭書 pp. 206~228

恭愍王 16年頃に 巨儒 李穡이 太學長의 자리에 앉고, 그 밑에 金容九, 鄭夢周, 朴宣中, 李崇仁 등의 쟁쟁한 教官이 있어 儒教哲學인 性理學을 講함으로 부터는 儒學의 進退과 아울러 儒學의 運動이 매우 活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후 太學을 中心으로 異端排斥 特히 排佛運動이 猛烈히 展開되어 심지어 削髮者(僧侶)를 죽여도 좋다는 過激分子까지 있었다.<sup>4)</sup>

鄭道傳, 鄭夢周, 李仁復과 같은 極端의 抑佛揚儒論者로 因하여 그 當時 佛式으로 지내던 喪禮의 儀式을 廢하고, 儒教式 儀禮를 採擇하게까지 되었다. 이리하여 抑佛 揚儒主義는 李氏朝鮮에 이르러 더욱 發展한 뿐만 아니라 朝鮮時代 500年間 絶對的 倫理道德觀의 標準이 되었고, 現在 우리들의 各 家庭의 規禮가 되다싶이 되었다.

## Ⅲ 教育制度

高麗 建國初期의 學校教育은 新羅의 制度를 繼承하였다. 그러므로 中國 唐의 教育制度를 模倣한 것인데, 高麗 建國初期에는 새로운 制度가 確立되지는 못하였다. 其後 16代 成宗(982~997) 年代에 와서 비로소 高麗王朝로서의 教育에 依한 새로운 制度의 學校施設을 차츰 整備함을 보아 統一以前보다 그 体制에 있어서나 學科內容에 있어서 組織的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高麗史에 依하면 當時의 學校制度는 「序로서 이를 기르고 科目으로서 이를 취한다」고한 것을 보아 學校는 國家的인 官僚養成의 機關으로서 科擧制度에 依하여 考試를 본 後에 人材를 登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時期의 學校는 科擧와 分離된 制度라고 보아야 하겠다.

太祖의 治國理念을 보면 그 當時 一般民衆 生活속에 깊이 파고든 圖讖(도참)思想과 尊佛信仰을 支持하는 同時에 崇學育才를 理國之本으로 삼았다.

學校設立의 順次를 考察하면, 太祖 13年(930)에 西京에 學校를 세우고 또한 秀才「廷議」을 시켜 따로 學院을 세워 六部學徒를 가르치게 하고 成宗 6年(987)에 地方學校와 같은 것을 十二牧 밑에 두어 經學, 醫學을 가르치게 하고 成宗 11년에는 一種의 綜合大學校와 같은 國子監을 開京에 建立하였다.

### 1. 國子監

高麗史에 依하면 高麗社會의 學校規範이 되는 새로운 綜合大學校의 性格을 갖는 國子監을 創設하고 그 財源으로서 田莊을 支給하여 學糧에 充當하고 있는 것이다. 즉 成宗 11年(992)의 記錄에 「王은 學校를 세우라는 敎示를 내리고 有司에 命하여 勝地를 보게하여 學舍를 만들고 田

4) 李丙濂 韓國史 中世篇 pp. 709~710

莊을 끌어하고 國子監을 創立했다」<sup>5)</sup>는 記錄이 바로 그것이다.

國子監에 對한 內容은 17代 仁宗때(1123~1146)에 式目都監이 作定한 學式에 依하여 대체로 알 수 있는데 그 內容은 國子監에는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書學, 算學 등의 六學이 있고 入學資格은 各學에 따라서 그 身分의 制約을 받게 되었다.

### 1) 入 學 資 格

原則적으로 一般 庶人 以上の 子弟들로 入學할 수 있었으나 國子監에 入學資格은 國子監의 諸教育機具에 따라서 그 身分의 制約을 받게 된다.

#### a. 國 子 監

- ① 文武官 三品 以上の 子弟
- ② 勳官 二品 帶縣公 以上の 子弟
- ③ 京官 四品 帶三品 以上の 勳封者의 子弟

#### b. 太 學

- ① 文武官 五品 以上の 子弟
- ② 正從 三品의 曾孫
- ③ 勳官 三品 以上の 有封者의 子弟

#### c. 四 文 學

- ① 勳官 三品 以上 및 無封 四品 以上の 子弟
- ② 有封 및 文武官 七品 以上の 子弟

#### d. 律學, 書堂, 算學

- ① 文武官 八品 以上の 子弟
- ② 庶人 또는 文武官 七品 以上の 子弟로서 請願하는 者

### 2) 定員 및 年限

#### a. 定 員

國子監의 國子學, 太學, 四門學의 學生定員은 時代에 따라서 差異가 있는 것으로 推測되나 式目都監에 依하면 各 300名으로 되어 있다.<sup>6)</sup>

#### b. 修 學 年 限

修學年限에 對해서는 文宗 17年(1063) 8月制에 在監年數가 9年이 되고 律學, 算學의 學生으

5) 高麗史 卷74 選舉 2 學校

6) 上揭書 卷74 選舉 2 學校

로서 9년이 되어도 學業이 성취될 可能이 없는 者는 내보내라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儒學科인 國子監, 太學, 四門學의 修學年限은 9년이요, 律學, 書學, 算學은 6年을 原則으로 한 뜻하다.

## 2. 鄉 校

高麗時代의 地方學校로서 鄉校는 언제 創設이 되었는지 確實치 않다. 그러나, 第6代 成宗 5年(986)에 諸州 學生들이 京師에 머물러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해 한다는 말을 듣고 故鄉에 돌아가게 許諾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契機로 다음해인 成宗 6年에 地方行政區劃인 十二牧에 經學, 醫學博士 1人씩 보내서 地方學生을 가르치게 한 것이 鄉學이 始初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後에 仁宗 5年(1127)에 「諸州에 詔하여 學校를 세워서 教導를 넓혔다」<sup>7)</sup>라고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仁宗 5年에 鄉校를 建立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鄉校는 孔子를 享祀하는 文宣王廟를 두고 이것을 中心으로 해서 學生을 講義하는 明倫堂이 設立되어 있었다. 高麗中期의 儒學者 李穀은 「本國 鄉校의 制는 廟學과 同宮이다」<sup>8)</sup>라고 한 것을 보면 李朝時代의 鄉校와 近似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東西學堂과 五部學堂

學堂을 開京에 設置하고 地方의 鄉校와 같은 規範으로 運營되고 있었다. 24代 元宗 2年(1261) 3月에 許衡(許魯齊)에 依하면 「置 東西學堂 各差別監 學校教導」<sup>9)</sup>라고 詔書를 내린 것으로 보아 그 時期에 始作된 學堂을 國都의 東西에 두 학교를 設置한 것을 말한 것이다.

第34代 恭讓王 2年(1390) 2月에는 「置京中 五部及 西北面府州 儒學教授官」<sup>10)</sup>이라 하여 京中五부와 西北面府州에 儒學教官을 두었으며, 學堂教育은 이때에 隆盛하였음을 알 수 있다. 鄭夢周의 五部學堂과 鄉校의 設置 推進시키는 글에 依하면 「前略…始令士族倣 朱子家禮 立家廟 奉先祀…中略…又內建五部學堂 外設鄉校以興儒術…下略一」<sup>11)</sup> 즉 中央에는 五部學堂의 「設置와 各 地方에는 鄉校를 設置하고 士族으로 하여금 朱子家禮를 따라서 家廟를 세워고 祖上의 祭祀를 지내고 받들게 하였다는 事實로 보아 이 때의 儒學 振興을 積極的인 方向으로 推進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東西學堂이 國子監과 地方 鄉校와 다른 점은 文廟制를 設置하지 아니하였다. 高麗史에 文

7) 上揭書 卷47 學校考

8) 上揭書 卷74 選舉 2 學校

9) 上揭書 卷74 學校考

10) 上揭書 卷74 學校考

11) 上揭書 卷117 鄭夢周傳

廟에 對한 記事가 國子監과 鄉學에는 있으나 學堂에 對해서는 文廟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가 없다. 李朝時代에 中央에 設置한 四學이 高麗時代의 學堂을 繼承 發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成均館에란 文廟가 設置되고 四學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高麗의 東西學堂 또는 五部學堂에는 地方鄉校와 同一한 性格의 教育水準으로서 學을 講하는 순수한 教育機關이었다.

#### 4. 十 二 徒

十二徒는 高麗時代의 私學機關으로서 가장 유명한 十二個校를 指稱하며 이 十二徒中에서 처음 創始한 사람이 海東孔子라고 호칭한 崔冲이 세운 崔公徒이다.

文宗은 비록 獎學에 힘쓴 王이었으나 太祖 建國以來로 官立 學校인 國子監은 指導하는 教授의 無實力한 것과 迫力없는 所以로 항상 興旺한 氣勢를 보지 못하고 있던차 儒學의 泰斗요 政界의 元老인 「崔冲」이 親히 나서 青年의 教育을 擔當하였다. 이를 十二徒라 稱하며 高麗時代의 私學機關으로서 그 當時 教育史上 一大 變革을 招來할 수 있었던 契機도 崔冲의 十二徒에 依하여 마련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不振狀態에 있었던 官學의 堅固한 基礎를 뒤는데 있어서도 重大한 役割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麗朝의 黃金時代를 甞는데에도 直接的인 要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崔冲은 學班을 九齊로 나누어 指導하니 九齊의 이름은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大和, 待聘이었다. 待中 崔冲 崔公徒를 따라서 다른 有名한 私塾이 十一個所가 생기니 이것을 합쳐서 十二徒라 불렀다. 이들 十二徒의 創設者와 또 創設者의 經歷等은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sup>12)</sup>

<表1>

徒 名	設 立 者	官 歷
1. 文憲公徒	崔 冲	顯宗4年 國史修選官 17年 知貢舉, 靖宗9年 知貢舉, 文宗即位年 門下待中
2. 弘文公徒 (一云 愍川徒)	鄭 倍 傑	德宗8年 知貢舉, 靖宗元年 左拾遺知制誥, 文宗元年 中樞院副使로 知貢舉
3. 匡憲公徒	盧 且	文宗34年 禮部尚書로 知貢舉, 宣宗2年 中樞院使로 知貢舉, 宣宗3年 尚書左僕射參知政事
4. 南山徒	金 尚 寶	靖宗7年 右拾遺
5. 西園徒	金 無 滯	
6. 文忠公徒	殷 鼎	文宗25年 秘書少監右副承宣

12) 安商元, 申千澍, 韓國, 西洋教育史 p. 261

7. 良嶺公徒	金朴 義命 珍保	文宗元年 殿中符御史, 文宗14年 知尚書吏部事
8. 貞敬公徒	黃 瑩	肅宗2年 參知政事로 知貢舉, 肅宗4年 中書待郎同中書門下平章書
9. 忠平公徒	柳 監	
10. 貞憲公徒	文 正	文宗24年 兵部待郎左諫議大夫, 文宗32年 參知政事로 知貢舉, 宣宗16年 守太尉門下待中
11. 徐待郎徒	徐 碩	
12. 龜山徒	未 詳	

以上 十二徒의 創設者는 거의다 文宗時의 儒臣이었고, 考試官이 없으며 徒名은 大概 設立者의 職名이나 或은 그의 所在地를 붙여서 붙였다. 十二徒中 가장 盛하고 有名했던 것은 勿論 「崔沖」의 文憲公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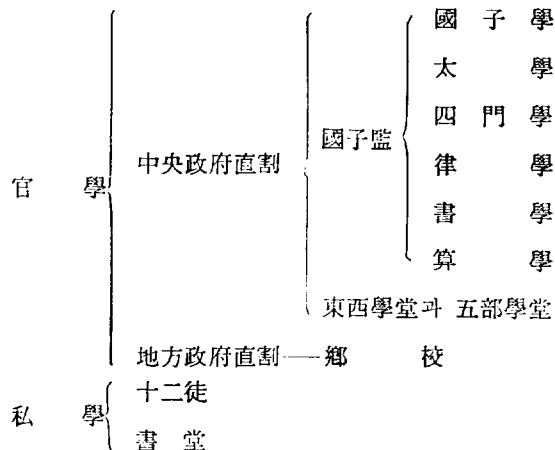
### 5. 書 堂

高麗時代에 地方 庶民 教育機關으로 書堂에 對한 기록으로는 宋人 徐兢著의 「高麗圖經」에 나타난 기록이 있어서 어느정도 그 狀況을 推測할 수 있다. 高麗圖經에는 仁宗時代의 學風을 쓴 것을 보면 「經館과 書社가 두, 세 집씩 서로 바라보며 民間의 未婚子弟가 무리로 모여 先生에게 經을 배우며, 장성하면 類대로 벗을 擇하여 寺觀으로 가서 강습하고 卒伍나 兒童까지라도 亦是 先生에게 배운다」는 것은 그 當時 書堂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高麗時代의 學校制度를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2>

高麗時代의 學校制度





## IV 教育의 實際

### 1. 教科內容 및 學習

#### 1) 國 子 監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書學, 算學 등은 國子監에 屬하며 學生身分에 依하여 區別되어 있고, 教科內容은 經學을 主로 하였으며, 必須科目은 孝經과 論語로 되고 있었다. 또한 算術과 時務策 등을 兼修하게 하며 修學年限은 1年이었다.

小經은 尙書, 公羊傳, 穀梁傳으로 各 2年半이고, 中經은 周易 毛詩, 周禮, 儀禮로 各 2年이며, 大經은 禮記, 左傳으로 各 3年으로 하여 小經, 中經, 大經 등 三級科目에서 各 一經씩을 選擇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國子學, 太學, 四門學 등에 있어서의 修學年限은 9年이며 技術學에 屬하는 律學, 書學, 算學 등은 律生 등의 過程으로는 修學年限은 6年인 듯 하다. <sup>13)</sup>

먼저 孝經과 論語를 읽고 諸經을 다음으로 읽어야 하며, 算術과 時務策을 익혀가는 外에 習字 한강을 써야 한다. 그리고 國語, 說文, 字林, 爾雅도 겨를 있는 대로 읽어야 한다. 學生이 一經을 배운 다음에 반드시 講을 마치게 하고 終講을 못한 자는 學科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年末에 終講의 多少를 計算하여 博士나 助教가 이를 考試하도록 하였다. <sup>14)</sup>

그 後 여기에서 模倣하여 16代 睿宗4年(1109)에 文武七齊를 國子監안에 設置하게 하였고 各齊마다 專攻科目을 두었다. 卽 麗擇齊에는 周易, 持賓齊에는 尙書, 經傳齊에는 毛詩, 求仁齊에는 周禮, 服膺制에는 戴禮, 養正齊에는 春秋, 講藝齊에는 武學 등을 두었다.

특히 文에는 六齊를 武에는 一齊만을 認定하였던 점으로 보아 武보다 文을 崇尚하여 國事の 處理도 文藝中心에 置重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와 反對로 武學을 비로소 두었다는 점은 자못 注目되는 점이다. 또한 國子監의 國子學, 太學, 四門學 등의 教科內容은 거의 같았으며 律學, 書學, 算學 등은 國子監의 擴充과 完備를 위하여 크게 이바지 하였던 것이다. <sup>15)</sup>

#### 2) 鄉 校

鄉校는 中央의 國學을 縮少한 것으로서 入學身分은 八品 以上の 子弟와 庶人으로 하고 있었다.

鄉校는 孔子를 享祀하는 文宣王廟를 두고 이것을 中心으로 하여 學을 講義하는 明倫堂이 設

13) 李丙燾 前掲書 pp. 149~206

14) 現代教育叢書, 卷2, 教育史, p. 297

15) 金庠基 高麗時代史, pp. 840~841

置되어 있어서 李朝時代의 鄉校와 近似한 것으로서 教科內容은 小學, 四書, 五經, 近思錄 및 諸史 등이 사용되었고 간혹 農業에 關한 書籍도 사용하였다.

### 3) 東西學堂과 五部學堂

東西學堂과 五部學堂이 國子監과 地方鄉校와 다른 점은 文廟制를 設置하지 아니하였다. 高麗史에 文廟에 對한 記事가 國子監과 鄉校에는 있으나, 學堂에 對해서는 文廟가 있었다는 記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李朝時代에 中央에 設置한 四學이 高麗時代 學堂을 繼承 發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成均館에만 文廟가 設置되고 四學에서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高麗의 學堂은 地方鄉校와 同一한 性格의 教育水準으로서 學을 講하였다.

### 4) 十 二 徒

崔沖의 十二徒를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傳, 大和, 待聘 등 九齊로 區分하여, 教科目은 大體로 國學의 範疇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主로 經學과 史學 文藝 등에 置重하였고 여기에서 修學하는 大部分의 學生들은 科擧에 應試하려는 사람들이었다. 修學中 3年 以上 在籍者로서 그 成績이 優秀한 者에게는 科擧에 應試할 수 있도록 措置가 取해지고 있었다.

특히 十二徒에서 修學하고 있었던 學徒들은 學堂에서 修學하는 者보다도 모든 禮儀凡節이 남달리 바르고 模範이 되고 있어 世人間에는 높이 稱頌받고 있었다.<sup>16)</sup>

### 5) 書 堂

書堂에 수용된 學生은 7·8歲로부터 15歲의 兒童이 普通이고 때로는 20歲 以上 成婚者도 있는 경우가 있다. 教授者는 訓長이 中心이 되어 指導하였으나 學生數가 많은 경우에는 訓長을 도와서 接長이 學生을 指導하였다. 學習內容은 講讀으로는 千字文, 童蒙先習, 通鑑, 小學, 四書, 三經, 唐宋文, 唐律 등이고 春秋, 禮記, 近思錄 등의 책을 읽는데도 있다. 이와같은 講讀이 위주가 됐으나 製述과 習字를 課했다. 그러나 書堂에 따라서 加減있은 것으로 봐야한다.

教授法은 讀解, 暗記 위주로서 學生의 能力에 따라서 教科進度가 決定되고 注入式教育이 實行되었다.<sup>17)</sup>

### 6) 科擧制와 敎育

高麗王朝에 있어서 敎育의 國家的 目的은 治國之士에 두고 人材養成은 學校敎育에 두었음으로 科擧制度에 對한 것을 略述코저 한다.

科擧制度는 高麗初 光宗9年(958)에 國家가 人材登用의 制度로서 成立되었다. 이 科擧制度의 前身으로서 新羅 元聖王4年(788)에 讀書 出身科(讀書三品科)를 두어 經史 讀解의 能力에 따라

16) 前掲書, 卷2, 敎育史, p. 300

17) 韓國敎育史研究會編, 韓國敎育史 pp. 76~77

上品, 中品, 下品으로 分類하여 官僚를 登用하였으나 閭閻政治를 행하고 있던 新羅王朝로서는 別다른 效果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高麗王朝가 일어나서 光宗9年(958)에는 後周의 翰林學士인 雙翼가 獻議하여 비로소 中國式 科擧制가 施行하게 되었다. 이 制度는 高麗初期의 政治 社會上에서 나타난 王權確立의 必要性의 結果라고 보아야 하겠다.

教育의 國家的 目的은 治國之士에 두고 人材養成은 學校教育에 두었으나 國家가 必要로 하는 人材選出은 科擧에 依存했기 때문에 個人의 揚名은 科擧에 合格하는데 窮極的인 目的이 되었다. 다만 學校教育은 本然의 目的인 聖人 君子란 人格完成에 置重되기 보다 科擧에 應試 合格의 手段으로 學校教育의 性格이 強하게 作用되었다.

그러므로 高麗時代의 科擧度는 國家教育目標와 一致하고 있으며 이것은 必然的으로 科擧의 科目과 教育機構에서의 教育課程은 서로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科擧의 方法은 每年 地方官이 志望者를 文宣王廟에서 試驗하여 한 사람 내지 세 사람 程度의 適當한 者를 選擇하여 貢士로하여 이를 中央에 보냈다. 이것을 進士라고 稱하였고 그 數는 約 400名에 達했는데 中央에 國子監에서는 또 이를 試驗하였다. 이를 監試라고 하였다.

이제 高麗時代의 科擧制度의 種別과 그 科目(表3) 및 科擧種別과 學校教育과의 關係(表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表3〉 科擧 및 科目表

科目	科別	考試科目
制述業	業	經, 義, 詩, 賦, 頌, 策, 論
明經業	業	詩, 書, 易, 春秋, 禮記等
明法業	業	律, 令等
明算業	業	九章(算術), 綴術, 三開, 射家等
明書業	業	說文, 五經字樣, 眞書, 行書, 篆書, 印文等
醫業	業	素問業, 本草經, 明堂經, 脈經, 針經, 難經, 灸經等
呪禁業	業	脈經, 劉涓子方, 瘡疽論, 明經堂, 針經, 本草經等
地理業	業	新集, 地理經, 劉氏書, 地理決經, 經緯令, 地鏡經, 口示決等
向論業	業	慎書奏章, 向倫, 教經, 曲禮, 律等
三禮業	業	禮記, 周禮, 儀禮
三傳業	業	世家, 公羊, 穀梁

18) 前掲書韓國, 西洋教育史 pp. 270~271

〈表 4〉

## 科擧種別과 學校敎育

科擧	進士科	國子學	
		四門學	
		明經科	太學
		州縣學(鄉學)	
	明法科	一律學	
	明算科	算學	
	明書科	書學	
	醫業	醫學(太醫監)	
	呪禁業	州縣學(鄉學)	
	地理業	卜學(司天台)	
州縣學(鄉學)			

科擧에 應試資格은 原則적으로 一般 庶人以上의 子弟는 그 資格을 갖는다. 이점에 있어서는 高麗時代의 學校機構의 入學資格과 同一하다.

## V 敎育思想

高麗社會의 思想面은 한마디로 말하면 儒敎와 佛敎에 依하여 支配되던 社會라 할 수 있다. 太祖 王建에 依하여 創始된 高麗王朝는 新羅王朝의 思想的 基盤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서 儒敎에 依한 治國의 理念과 佛敎에 依한 護國의 思想은 高麗全盤을 通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 1. 郎, 佛, 儒思想과 敎育

花郎思想은 高麗中葉까지 民間思想으로 傳承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成宗12年(993)에 契丹이 入寇하여 西京以北을 割讓하여 和平을 提携하려 할 때 花郎派는 自主性を 보였다. 그러므로 「郎家は 尙 國體上에는 獨立, 自主, 稱帝, 建元을 主張하며 政策上에는 興兵北伐하여 鴨綠江 以北의 舊疆을 回復함을 力唱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sup>19)</sup> 즉 花郎派는 國風的, 獨立的, 進取的 思想이었고 儒敎派는 外來的, 事大的, 保守的 思想이었다.

19) 韓基彥, 敎育史 pp. 141~142

佛敎가 高麗社會에서 차지한 思想的 位置는 佛敎의 祭典인 燃燈會와 八關會가 年中行事 같이 되어 高麗社會를 通해서 內내 國家的인 重要的 行事가 되어진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燃燈會는 2월에 王都 開京으로부터 地方에 이르기까지 全國의으로 행하여진 佛敎祭典이었으며, 八關會는 옛부터 내려오는 土俗信仰과 佛敎가 결부되어 이루어진 일종의 秋收感謝祭와 같은 것으로서 間京에서는 11월에 西京에서는 10월에 행하여졌었다.

佛敎는 花郎徒와 妥協하였으며 情勢는 은연중에 郎·佛·對 儒敎라는 關係가 되었다. 妙淸의 亂은 이 對立의 한 고비를 이루었다. 郎佛思想을 代表한 妙淸과 儒敎思想을 代表한 金富軾이 전쟁이었다. 여기에 妙淸이 敗北하였고 儒敎思想은 공고한 세력을 얻어서 中國化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仁宗代의 儒敎中心의 教育制度의 完備로 나타났다.

高麗社會의 民間思想은 佛敎가 優勢하여 巨儒들까지도 佛書를 읽음으로써 民間思想面을 支配하였으며, 反面 儒敎는 教育思想의 中心이 되었다.

## 2. 教 育 思 想

太祖 王建에 依하여 創始된 高麗王朝는 新羅王朝의 思想的 基盤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서 儒敎에 依한 治國의 理念과 佛敎에 依한 護國의 思想은 高麗 全般를 通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高麗時代의 思想面은 儒敎와 佛敎가 서로 相合하면서 發展하고 있었으니 即「齊家治國의 學」으로서의 現實의 學問인 儒敎와 「修身治己」「安心立命」의 教인 佛敎는 서로 現實과 來世하는 一般的 見解로서의 儒者 文人으로서 佛敎를 篤信하는 者와 또 僧侶로서 儒學에 兼通한 者가 많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儒敎와 佛敎의 思想은 高麗 全般期를 通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李穡」에 依하면 「佛眞聖人也」라 하여 佛敎思想의 肯定과 또 高麗末 僧侶辛頌의 「文宣王天下萬也師也」라한 孔子思想의 肯定은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思想的 背景을 基盤으로 하여 來世之教인 佛敎는 寺院을 中心으로 하여 發達하였음에 對하여 現實의 治國根本의 學인 儒學은 學校를 中心으로 하여 發達하여 이후 高麗思想의 二大主流를 形成했던 것이다. 儒學的 思想의 發達은 以後 高麗로 하여금 獨立性을 상실시켜 中國에 對한 事大的 外交의 유약성을 나타내어 新羅 花郎思想에 影響을 받은 佛敎의 獨立의 精神에의 反撥을 가져와 妙淸의 亂을 수반하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儒敎와 佛敎自體의 對立에 依한 것보다는 國家政策에 對한 意見의 對立이라는 觀點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역시 그 자체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었다.

무릇 어떠한 思想이라도 그것이 發展하자면 먼저 國家의 積極的인 政策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 점에 있어 高麗時代에 있어서의 佛敎와 儒敎는 서로 相通하는 것이다. 儒敎思想의

發展을 위한 教育思想家의 出現도 볼 수 있으니 즉 崔冲, 安珣, 李穡, 鄭夢周와 같은 教育思想家들이다.

### 3. 教育思想家

#### 1) 崔 冲(984—1068)

##### a. 生 涯

崔冲은 黃海道 海州 崔氏의 始祖로서 字는 活然이고 號는 惺齊, 月圃, 放海齊 등으로 呼稱하였다. 穆宗8年(1005)에 科擧에 應試하여 甲科에 壯元及第하고 顯宗2年(1011)에 右拾遺가 되고 顯宗4年에 國史修撰이 되어 太祖부터 穆宗까지의 實錄編纂에 參與하였다. 德宗2年(1033)에 右散騎常侍가 되고 여기에 이어서 刑部尙書中樞使를 지낸후 文宗에 이르기까지 70平生을 官에서 生涯를 보냈다. 官에서 물러난 후 15年間 한가롭게 生活하면서 私學 教育에 이바지한 바 크다.

##### b. 目 的

化民成俗을 위한 教育이다. 「禮記學 記篇」에는 「民成俗其必由學乎」라 하였고, 高麗史에는 「化民成俗其由學校」라 하였고, 中庸에는 「變則 本 받을 化」라고 하였다. 그리고그 다음에는 세소한 것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精誠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精誠되면 곧 나타나고, 나타나면 곧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곧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움직이고, 움직이면 곧 變하고, 變하면 곧 化하는 것으로 天下의 지극한 精誠됨을 化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感動시켜 教化시킨 후 바람직한 良俗을 이룩하는 것이 곧 學校教育인 것이다.<sup>20)</sup>

이와같은 教育思想의 立場에서 官學이나 私學을 莫論하고 儒敎的인 觀念의 生産機關이었다. 儒學을 배우는 目的은 經史의 知識과 文章의 技能을 얻는데 있었던 것이 바로 國家가 바라는 目的이었으며, 個人的立場으로 볼 때에는 그 科擧를 위한 것이었다. 國家는 一人王國時代이기 때문에 忠誠을 能히 알 수 있는 人間을 만드는데 있었다.

##### c. 內 容

教育內容은 五經과 三史를 中心으로 해서 詩·賦·詞·章 등의 詩文製述을 重視했는데 이러한 傾向은 性理學이 수입되기 前에 儒敎教育이 보편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前述한 바 九齊의 이름은 儒敎思想에서 德行의 修學過程에서 名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 가운데 誠明·率性은 德行을 重視하는 中庸에서 取해진 것이라 하겠다. 詩文을 教育上 重視한 것은 當時에 國家的인 人材登用을 하는 科擧制度에서 製述業을 重視하고 考試科目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教育風調로 보아야 하겠다.

20) 前掲書 韓國教育史, pp. 35~36

## d. 方 法

前述한 官學의 方法과 같은 것으로 推理된다. 그리고 崔冲의 九齋에 있어서는 每年 여름이 되던 歸法等의 僧房을 빌려서 講習會를 열었다. 이는 開京 市內에 복잡한 더위를 피해서 교외로 나아가서 學業의 能率을 올리자는 데 있었다. 또한 절을 찾아 갔다는 것은 高麗時代만 하더라도 學科는 儒教學問이나 非形式的 教育으로 思想이 혼잡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2) 安 珦(1243—1306)

## a. 生 涯

安珦은 光州人으로서 高宗30年(1243) 興州에서 出生하여 兒名은 裕이고 號는 晦軒이다. 父親은 本來 州吏로서 醫師로써 立身하여 官職의 密直副使가 되었을 때 退職하였다.

元宗初에 登第하여 校書郎 翰林등을 거쳐 忠烈王15年(1289)에 征東行省의 左右司郎中에 除授되었고 또 本國 儒學提學이 되었다가 1306년에 64歲로 卒하였다.

## b. 目 的

晦軒의 教育目的은 「人材養成」에 두었다. 序序가 크게 파괴되고 儒學이 隆盛하지 못함을 크게 근심하여 兩府에 건의하여 “宰相의 職은 人材를 養成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는 修養의 要訣을 實踐의 道에 두었다. 日用倫理가 聖人의 道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聖人의 道는 日用倫理에 不過하니 子弟로서는 多망히 孝道를 해야되며 臣下로서는 忠誠되어야 하고 禮로서 家庭을 다스리고 信義로서 親舊와 交際하고 自己自身을 다스리는데(修己) 있어서는 반드시 敬으로 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誠意를 다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였다.<sup>21)</sup>

또 “仲尼의 道를 學習하고자 하면 먼저 晦軒을 배워야 한다. 諸生들은 그를 소홀히 하지 말라”<sup>22)</sup>고 國學生들에게 당부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 c. 方 法

嚴格과 親愛와 순순히 비유를 들어 깨우치며 表理一致와 誠敬과 禮法이었다. 學生들 가운데 先進者에게 禮하지 않은 者가 있어 晦軒이 罰을 주려고 하였다. 그 때 學生이 謝過를 하였으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訓戒하였다. 「내가 諸生 보기를 내 子孫과 같이 하고 있다. 諸生이 어찌하여 老父의 뜻을 받지 않느냐?」고 말하고 자기집으로 끌고 가서 술을 주었다. 諸生들 서로 말하기를 「先生이 士를 待하기를 이같이 誠意로 하는데 化服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고 말하고 서로 警戒하여 어기지 않았다.<sup>23)</sup>

21) 韓基彥, 前掲書 pp174~175

22) 晦軒年譜, 實記卷一

23) 高麗史-百五, 列傳卷第十八安晦條

## 3) 李 穡(1328—1396)

## a. 生 涯

先生の字는 穎叔이요 號는 牧隱으로서 高麗末 三隱王 한 사람이다. 忠肅王 15년에 贊成 李穀의 아들로 태어나 14歲에 成均試에 及第하고 21歲때 元에 留學하여 元에서 科擧에 及第하고 歸國하여 恭愍王을 비롯하여 여러 王에게 奉翊大夫, 密直提學등의 관직을 거쳐 判開城府事겸 成均館 大司成을 지냈다.

先生은 高麗末에 가장 뛰어난 巨儒로서 文集 50餘卷을 남겼는데 그의 文章은 우리나라 第一의 文豪란 評을 받을 程度 매우 뛰어났었다<sup>24)</sup>

先生の 教育思想은 性理學에 기초를 宇宙의 法則은 理이고 萬象의 分化를 性이라고 하였다. 「道의 大原이 天에서 생기는 것이니」 모든 것의 近源은 天에 있고 宇宙의 理가 되며 모든 것이 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과 物件이 다른 것도 性이다. 이것은 同一한 性이요 同一한 天에서 나온 것이다. 즉 道의 근원인 天으로부터 나온 萬物의 分化가 그의 理性論이다.<sup>24)</sup>

## b. 目 的

그는 教育의 目的 ① 詞章을 외우며, ② 身心性命을 究明하고, ③ 功利를 꾀하지 않으며, ④ 異論에 마음이 엇갈리지 않도록 하는데 두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오직 뜻을 程朱의 性理學을 興하게 하는데 두었다.<sup>25)</sup>

先生은 國防力이 強化라는 뼈저리게 느꼈으므로 科擧制度에 武科를 들 것을 主張하였다. 즉 「만일 갑자기 戰亂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모두 당황해서 社稷을 지키고 君王을 돕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항상 한심하게 여겨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武科를 두어 武勇과 武藝를 試驗하여 有能한 武士를 채택하여 벼슬과 봉록을 주어 士氣를 높여주면 나라에 精兵이 가득차게 될 것이며 民衆들도 安心하고 各己 일을 보게 될 것이니 바라건대 他日 크게 후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sup>26)</sup> 말하였다.

## c. 方 法

先生은 學校教育을 重要視하여 風化之源이 政教의 本이고 人材의 涵養의 源泉이라 하여 「近來 학교가 旺盛치 못함은 學者가 祿에만 置重하고 記誦功利的 學에만 급급한데 있다 及第者는 國學을 거쳐서 應誠할 수 있게 하자」<sup>27)</sup>고 主張하여 人材登用과 教育方針을 改革할 것을 主張하였다.

24) 玄相允, 朝鮮儒敎史, 12面

24) 牧隱集, 直說三篇,

25) 韓基彥, 前掲書, p. 180.

26) 高麗史, 李穡條.

27) 前掲書, 74, 選舉 2 學校



教授方法의 要旨은 「四方學者가 雲集하니 諸公이 分經하여 수업하고 每日 講義가 講하면 相互間에 論難疑義하여 各臻其極할 때 公이 그 가운데서 辨折衷하다」라고 한 것을 보아서 첫째로 本文을 講義하고 둘째로 疑義를 論難하고 셋째로 異同을 辨折衷하고 넷째로 主旨에 합하도록 힘썼고 다섯째로 各自의 個性的 長點을 認定해주었다.<sup>28)</sup>

#### 4) 鄭夢周(1337—1392)

##### a. 生涯

그는 迎日人으로서 成均館 生員 云權의 아들로 태어나 高麗末期의 大儒이며 政治家로서 字는 達河이고 號는 圃隱이다. 19才 때에 進士가 되었고 24才 때에 登科하여 恭愍王 때에 成均館의 學監이 되어 學文에 진력하였다. 그는 朱子家禮를 본받아 宗廟을 모셨고 또 안으로는 五部學堂을 두어 後進을 教育하고 밖으로 鄉校를 設置하고 儒學을 進興하여 性理學의 基礎를 세웠다.

明나라와 日本에 使臣으로 간 바 있었고 內政, 外交, 教育에 많은 功績을 남겼으며 멸망하여 가는 高麗를 받들다가 후에 李朝 太宗이 된 李芳遠이 보낸 자격에 依하여 善竹橋에서 피살되었다.

先生은 天性이 至高하고 幼어서부터 大志를 품고 好學하여 群書를 博覽하고 每日 中庸과 大學을 究索하고 窮理하여 致知하고 反窮實踐하였다.

下季良(春亭)은 「吾 東方 性理學의 祖가 되었다」는 기록을 미루어 보아 麗末佛敎의 폐단과 더불어 巨儒가 續出하여 性理學의 수입과 發展한 晦軒 牧隱과 教育思想이나 目的이 同一하였던 것이다.<sup>29)</sup>

##### b. 內容

大學과 中庸, 論語, 孟子, 周易, 書傳, 春秋등으로서 教科의 學習要領을 論하고 經書內容을 分析해서 明示하였는데 先生은 詞章學을 未藝라 하여 中庸과 大學은 明道와 傳道의 要旨를 敎示한 것이라 하여 더욱 重視한 것이다.

教育方法은 「質問하는대로 講析하여 分毫도 차이가 없었다」<sup>30)</sup>한 것을 보아서 該博한 知識과 切實한 分析的인 論理로서 學生을 指導한 것이다.

## VI 結 論

太祖 王建에 依하여 創建된 高麗王朝은 新羅王朝의 封建制度가 그대로 繼承되었다가 宋文化

28) 韓基彥, 前掲書, p. 180.

29) 韓國教育史研究會編, 前掲書, p. 89.

30) 圃隱集書, 卷一.

의輸入으로 因하여 모든 文物制度에까지 그 影響을 미치게 되어 排佛尊儒의 사상은 漸次로 擴大되고, 佛教文化의 支配下에 있었던 高麗社會는 儒敎文化의 社會로 轉換되는 一大 變革期에 處하게 되었다. 이때에 政界의 元老이며 學界의 最高의 權威者로 豊富한 力量과 博識한 儒學者로 알려진 「崔冲」이 登場하여 私學機關으로서 十二徒를 設置하고 後進養成에 專力을 傾注하게 되었으니 이 私學이야말로 儒敎文化의 普及을 위한 中心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文物制度를 改造시킴에 있어서 劃期的인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다. 더구나 當時의 官學機關은 支配階級을 위한 中心이 되고 있음에 反하여 私學機關은 庶民大衆을 위한 中心으로서 社會改造 文化向上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指摘할 수가 있고 特히 佛教는 理想主義요 來世主義이며 理論中心主義의인데 對하여 儒學은 現實主義요 齊治主義이고 文藝中心主義의이면서 實用主義의인 特徵이 있어 前世紀的인 낡은 觀念과 頹廢된 社會에 하나의 旋風을 불어 일으키는데 크게 作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結果는 마침내 朝野百官의 保護와 支持를 얻게 되어 退步一路에 있었던 公機關으로서의 官學을 再整備하고 強化하는데 있어 하나의 榮養劑로서의 口實을 할 수 있게 되어 高麗社會의 黃金時代를 形成하는 重要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高麗史

- 李丙燾, 韓國史, 中世編, 震檀學會, 1961年,  
 “ 國史大觀, 普文閣, 1959年.  
 韓國文化史大系Ⅵ,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70年.  
 金得攄 韓國思想史, 南山堂, 1958年.  
 趙之薰 韓國文化史, 序說, 探求社, 1964年.  
 金庠起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64年.  
 柳洪烈, 麗末鮮初의 私學, 育丘學叢書, 24.  
 李弘植, 國史大辭典, 知文閣, 1969年.  
 韓基彥, 韓國教育思想史研究 서울大學 出版部, 1968年.  
 孫仁錫, 韓國教育思想史, 載東文化社, 1954年.  
 韓國教育史研究會編, 韓國教育史, 1972年.  
 車錫基·申千澁, 韓國教育史研究, 載東文化社, 1969年.  
 現代教育叢書, 卷.2, 教育史, 現代教育叢書編纂委員會, 1961年.  
 安商元·申千澁, 韓國, 西洋教育史, 螢雪出版社, 1974年.  
 韓基彥, 教育史, 法文社, 1965年.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學會, 1936年.  
 三浦藤三, 東洋教育史, 太陽社, 1943年,  
 梨花女子大學校 70年史, 梨花大學出版部, 1966年.

## — Summary —

## A Study on the Education of the Koryo Dynasty

Hyun In Hong

Koryo Dynasty can be expressed to have been a society, in the main current of thought, dominated by Confucianism and Buddhism. Wang kun, founder of the Koryo Dynasty decided to follow the feudalism of the Shilla Dynasty.

But, with the import of Song(宋) culture, the ideology of governing the nation by way of Confucianism and the thought of defending the fatherland prevailed throughout the Koryo Dynasty till the dynasty perished.

Needless to say, in the latter part of the Koryo Dynasty, many Confucian scholars made a movement for expulsion of Buddhism. However, it was nothing but part of the view of the principal current of the nation. Consequently the thought in the era of the Koryo Dynasty had developed through the counter congruence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On the other hand, Choi Choong, a Confucian scholar wellknown as an elder statesman and as the highest authority in that time on learning, appeared in the dynasty of Koryo. He established the "Twelve Private Schools(十二徒)", and devoted all his energies to the training of younger men of ability. This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system not only became the center for promoting the spread of Confucian culture, but played an epoch-making role in reconstructing the whole of civilization systems. So it can be pointed out that while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ose days were centers of the ruling classes,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eing the centers of common peopl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reconstructing a better society, and elevating culture.

Furthermore,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was an important element which made a golden age of the educational world in Koryo society, because it was able to accelerate the reconsolidation of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

In part II, I outlined the societ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Koryo society under the classification of some periods the initial stage, stage of instability, and the period of pro-Confucianism along with anti-Buddhism; in Part III, the educational system of Koryo Era; in Part IV, the actual state of education; in Part V, aspects of educational thoughts, and consideration of authoritative educators such as Choi Choong, Ahn Hyang, Lee Saek, and Chung Mong-joo; Part VI, served as the conclusion.